

헌사_김종철을기리며

혁명이 필요 없는 혁명

김종철 선생께서 가신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6월 하순 서울 조계사에서 3주기 추모 회를 가졌는데,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선생을 새삼 기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22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선생을 되새기는 이 시간은, 애도를 마무리하고 선생의 유산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자는 각오와 연대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선생의 삶과 사상, 그리고 실천과 비전을 어떻게 한두 마디로 정돈해야 할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선생께서는 영문학을 전공한 학자이자 교수였지만, 한국문학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문학비평가였습니다. 대학에서 후학을 길러내던 1991년 <녹색평론>을 창간하면서 선생은 문학의 대상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산업문명과 전방위에서 맞섰습니다. 자본주의와 현실 정치에서부터 에너지와 자원, 농업, 의료, 과학기술, 금융과 화폐, 종교, 교육, 군수산업,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총체적 파국을 향해 질주하는 근대문명의 폐해를 직시하고 생태문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선생은 하나의 대학교였습니다. 선생의 생태적 사유와 전망은 몇몇 학문 분야가 모여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넓고 깊었습니다. 선생의 삶은 시민운동이었습니다. 강연장에서, 시위 현장에서, 토론회에서, 그리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김종철 선생과 <녹색평론>이 없었다면, 한국 시민사회의 이론적 토대는 허약했을 것이고 활동 영역도 협소했을 것입니다. 선생은 시민사회가 지금과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더 나은 세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지혜와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선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30여 년 전 <녹색평론>을 창간할 때도 물었고,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선생께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 까지도 희망을 물었습니다. 선생께서 보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이유, 아니 희망이 있는데도 그것을 공론화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본질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산업문명이 폭력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거나, 유한한 지구 자원을 수탈하는 개발과 성장은 이미 종말을 고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생은 대의정 혁파와 직접 민주주의 활성화, 금융과 화폐 제도 개혁, 교육 혁신, 에너지 전환, 농적 가치의 재발견과 소농의 회복 등을 통해 땅에 뿌리박은 공생공락의 사회를 추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생께서는 생명력 넘치는 상부상조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핵심 경로 중 하나로 기본소득을 꼽았습니다. 화석 연료에 기반한 경제 성장이 종언을 고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이상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반인륜적·반생명적 상황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본소득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생께서 2010년에 발표한 <돈과 자유-‘배당경제학’에 대하여>란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혁명을 일으킬 것도 없고 그냥 기왕의 시스템에 약간의 변경만 가하면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갈 텐데 말이예요. 기본소득제가 실현만 된다면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워질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 개개인의 삶에도 엄청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게 확실합니다.” 저는 선생의 이 말씀을, 기본소득제는 ‘혁명이 필요 없는 혁명’ 다시 말해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민주혁명’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민주적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혁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저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학습하고 내면화할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시민들에 의해 기본소득제가 구현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혁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은 ‘더 이상의 혁명이 필요 없는 최후의 혁명’일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일어나갈 새로운 세상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선생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민들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거듭날 것이고, 공동체와 사회는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앞세울 것이며, 국가와 국가는 국경을 넘어 호혜적 관계를 이뤄나갈 것입니다. 김종철 선생은 2016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됐을 때, ‘글로벌 기본소득’이란 새로운 아이디어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기본소득은 일차적으로는 늘어나는 이민자들에 대한 고려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가 인류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지구상 어디에서든 자유와 평등과 존엄을 누리는 것이 글로벌 기본소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가로막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 대책입니다. 전 세계가 글로벌 기본소득을 공통 의제로 설정한다면, 그 순간 인류의 미래를 가로막는 난제와 직면하고 해결책을 찾아나설 것입니다. 그 역도 성립할 것입니다. 지구 차원의 재난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글로벌 기본소득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이나 국가의 기본소득 논의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과정인 것처럼, 글로벌 기본소득은 새로운 지구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반세기 전, 동구권의 한 정치 지도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는 죽은 자를 부러워할 것이다.” 핵전쟁에 대한 경고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지구적 전쟁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는 세상, 미래세대가 기성세대를 저주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이자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사해야 할 떳떳한 권리입니다.

기본소득은 ‘혁명이 필요 없는 혁명’입니다. ‘현실 속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가, 물려받은 것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물려주는 ‘글로벌 무혈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고 캐묻던 김종철 선생께 답하면서 짧은 헌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희망의 증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